



구성원들 이해로 만드는 대학 복지

박 치 범 | 고려대 고대신문 편집국장

대학에서의 복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난감하다. 그것은 신입생이 되어 대학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느꼈던 놀라움들을 떠올리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 생활을 한 해, 두 해 겪어보고 또 다른 대학의 캠퍼스를 둘러보다 보면 문득 '왜 우리 학교에는 그것이 없는가(혹은 안 되는가)'라는 간사한(?) 질문과 만나기 마련이다. 대학 초년병들의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었던 대학 안의 복지 시설들과 제도들은 반복된 캠퍼스 생활과 타교와의 비교 속에서 이 삼 년차된 노련한 대학생들의 눈을 끌지 못한다.

대학의 복지 문제가 난감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복지 문제는 이처럼 '어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이기보다 만족의 문제이고,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기준선에 비하는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200개가 넘는 대학들의 평균적인 복지의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에 머리를 싸매기지 말고 '대학'과 '복지'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원론을 생각하면 의외로 답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글에서는 복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취업 준비생 양성소라고 비이냥저릴 생각은

없다. 단지 대학의 주체라는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단 교수의 경우 대학은 연구 공간이자 직장이다. 물론 이 두 가지 공간이 활용도의 기준을 말하는 어렵겠지만,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수들은 일정한 공간을 배정받고 그 속에 비치될 기본적인 비품을 받고서야 비로소 연구실을 갖추게 된다. 교수 연구실은 일반 기업의 사무실과는 다른 성격의 공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교수와 기업의 사원은 연구와 일이라는 다른 성격의 활동을 한다. 또, 교수는 스스로의 연구 활동을 '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은 일과 연구가 다르다는 점을 확연히 보여준다. 같은 교수가 수행하지만 보직교수들의 행정 업무는 일이고, 보직교수라 하더라도 연구 활동은 분명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시에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다. 이것은 교수들의 연구와는 가지적으로 조금 다른 활동이다. 교수는 강의를 위해 지정된 시간, 지정된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한다. 연구가 교수 개인의 활동이라면 강의는 다수를 상대로 한 활동이다. 연구와는 달리 강의에서 교수는 정형화된 행위, 예를 들면 칠판에 큰 글씨를 적으며 일정한 크

기 이상의 목소리로 설명하고, 또 질문에 답을 하는 등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대학 안에서 어떠한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는다. 이것은 교수와 같은 공간, 시간에서 일어나는 행위이지만 학생들은 교수의 행위와는 다르다. 학생에게 원칙적으로 정형화된 행동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응답 그래야 하는 행위들, 노트나 책을 꺼내 펼쳐 보고 칠판을 보며 필기하는 등의 행위가 요구된다. 또, 대학이라는 공간은 중·고등학교와는 다른 형식의 공간이 주어진다. 학습과 그 외 활동이 중·고등학교에서처럼 한 교실에서 모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 도서관, 과실, 동아리방, 식당 등 각각 활동의 성격에 따른 공간을 바꾸어가며 일어난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학생들의 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학생들이 자치활동이라 부르는 동아리, 학회, 소모임 등의 행위들은 더욱 그렇다. 특히, 최근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의 내부 확장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에서 이 부분을 '학생 자치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각 대학마다 여럿 있을 풍물 동아리, 락 동아리 등에 대해 교수나 대학원생, 심지어는 학부생들이 수업권을 조심스레 주장하기도 해, 이들 동아리들은 학교측에 학생 자치활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교수의 경우를 말하며 기업의 사원의 예를 들었는데, 학교의 직원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직원들은 대학이 직장이며, 직원들의 행위는 '일'이다. 따라서 교수들의 연구 공간과는 다른 모습의 공간을 배정받고, 비품을 들여놓으면서 사무실이 생기게 된다. 직원들의 공간은 교수들의 연구 공간과 달리 철저한 사무실이다. 이것은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은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대학이라는 공간에는 조금 다른 성격의 세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크게

나눈 것이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 구성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체들의 행동 양식은 다르지만 분명 이들 모두는 대학 안에서 하루의 대부분 혹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 교수든, 학생이든, 직원이든 간에 학교 안에서 행할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물품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 밥 먹고, 화장실에 가고, 또한 숨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 학생, 직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대학이 해결해 주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교수는 대학의 본원적 목표인 연구와 교육의 중심에서 있는 주체로서, 학생은 교육의 주체이자 다수의 구성원이요, 또한 한국적 정서상 '제자'로서, 직원은 학교경영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의 한 주체로서 각각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질(質)의 문제가 개입된다. 이것은 어디 교수연구실과 강의실이 없고, 교수, 학생, 직원이 설 공간 없는 대학이 없냐는 항변 이상의 문제이다. 이것은 '어떻게' 혹은 '어떤'의 문제이며, 아울러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 에어컨이 없던 한 고등학교에 어느 날 에어컨 세 대가 들어와 각 학년 교무실에 설치됐다고 하자. 그랬을 때 학생들이 교실에는 없는 에어컨이 교무실에 설치되었다는 불멘 소리를 늘어놓을 것이 뻔하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사들대로 에어컨 없는 직장이 요즘 어디 있냐고 항변하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가까운 예로 최근 본교(고려대) 본관 화장실 개조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본관 화장실을 개조한 것이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문화재를 임의로 변경·훼손한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인 듯 했지만 이를 접한 학생들의 관심은 본관 화장실 개조에 들어간 1억 여 원의 금액이었다. 학생들이만이

이용하는 학생회관 등 건물의 화장실은 그야말로 낙후라는 표현도 미안한 마당에 그만한 거액을 들여 본관 화장실을 개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처럼 복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나의 문제에 봉착하는 것과 더불어 대학에서의 그것은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복지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의 적용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가 무엇일까? 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인데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교수 연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 낡은 철제 책상을 놓고 마땅한 책장이 없어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구형 PC로 연구하느냐, 아니면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책, 허리 건강에도 좋은 의자에 앉아 평면 모니터를 보면서 연구하느냐는 분명 다른 것이다.

또, 복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일견 복지라는 것은 원래 주어진 것이라고 느껴지지만 서두에서 말했듯이 주어진 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각기 다르며,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복지 역시 변화하고, 또 그러한 변화는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학에서 복지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학교 당국은 물론,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등 대표기관이나 혹은 구성원 개인이다. 개인이 스스로의 복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그렇지 않지만, 대표기관 혹은 대표자에 의한 정책결정이 복지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또 우선 순위가 매겨지기 마련이다. 이 경우 구성원들은 결정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결정자가 합리적 과정을 거쳐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활동을 통해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결정자는 스스로의 복지를 앞세운다면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에서 도덕성 혹은 자질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 글을 갈무리할 즈음이 되면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무엇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지방 모(某) 대학에서는 교수가 임용되고서도 연구실을 배정받지 못하고 또 학교 공사도 맡아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없어 학교의 환경부터가 엉망이라고 하면 이미 복지는 논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구성원들의 이해로 만들어가는 의욕 넘치는 복지, 그것이 너무나 원론적인 그러나 너무도 만들기 어려운 작업인 이유는 매 학기 대학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